

기상사랑

2018. November

11

www.kma.go.kr Vol. 449

특집

전 세계가 주목한 1.5°C,
제48차 IPCC 총회를 개최하다!

포커스

기상청 날씨 공감 프로젝트,
SNS로 더 가깝게 소통해요

날씨 + 문화

'용감이가 나오는'
국산 SF영화가 등장할까



기상청



2018 강소농 대전

현명한 소비자와 작지만 강한 농업인의 만남!

|기간| 2018.11.28(수)
-12.1(토) 4일간

|장소| 코엑스 A홀

|주요 프로그램|

개막행사

전시·홍보행사

체험·이벤트, 경진대회 등

하늘사랑

2018 November Vol. 449 2018년 11월호(통권 449호)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전화 (02)2181-0360
 팩스 (02)836-5472 E-mail kmanews@korea.kr 발행처 기상청
 발행일자 2018년 11월 12일 발간등록번호 11-1360000-000079-06
 발행인 김종석 편집장 김현경 편집기획 윤기한 최의수 조희애
 디자인/인쇄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KMA Special Issue

특집
 전 세계가 주목한 1.5℃,
 제48차 IPCC 총회를 개최하다! · 02

포커스
 기상청 날씨 공감 프로젝트,
 SNS로 더 가깝게 소통해요 · 06

KMA 날씨+

날씨 + Story 옷 세탁하기 어려운 겨울,
 소재별 세탁 방법 · 18

날씨 + Book 긴 여름의 끝 · 20

날씨 + 건강 겨울철 건강 관리법 · 22

날씨 + Travel 지구의 상들리에, 오로라를 보다 · 24

날씨 + 문화 '용감이가' 나오는 국산 SF영화가
 등장할까 · 26

KMA About

열린마당
 흥 폭발! 감성 총만! 우리나라의 뮤직 페스티벌 · 08
 서로가 서로에게 익숙해지는 시간, 여행 · 10
 우리 동네 역사 산책 · 12
 방콕의 천사들 · 14
 두 번째 채식을 시작하며 · 16

KMA Report

포토 브리핑 · 28

독자 마당 · 30

포토 에세이 · 32



November



02



09



25



기상청에서 발행한 「하늘사랑」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출처표시·상업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인 목적이거나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입니다. www.kogil.or.kr



전 세계가 주목한 1.5°C 제48차 IPCC 총회를 개최하다!

기후과학국 기후정책과

제48차 IPCC 총회 돌아보기

지난 10월, 기상청은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제48차 IPCC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는 135개국 570여 명이 참가하고 200여 명의 국내외 기자들이 기자회견에 참여하는 등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아쉽게도 비공개 회의라 알 수 없었던 제48차 IPCC 총회, 그 일주일간의 기록을 살짝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9월 28~29일 사전 주저자 회의

총 33쪽 분량의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가 완성될 수 있도록 초안 작업에 애쓴 집필진과 관계자 60여 명이 총회를 앞두고 마지막 회의를 열었다. 제44차 총회(‘16.10.)에서 개요가 승인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보고서 작성에 매진한 저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기상청 차장이 환영 리셉션을 개최하고, IPCC 사무국장이 기상청과 저자들에게 건배사로 화답했다.

10월 1~6일 총회

1일 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의 영상메시지를 시작으로 환경부 장관, 기상청장, WMO 사무차장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의 환영사 및 축사가 이어졌다. 개회식에는 기후환경비서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참석하여 이번 총회에 대한 큰 관심을 보여주었다. 같은 날 저녁에는 기상청, 환경부, 외교부가 공동으로 환영 만찬을 주최하였으며 김학용 환노위원장, 이정미 의원이 축사로 총회 참가자들을 환영하였다.

본격적으로 보고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자, 모든 문장과 그림에 대해 합의점을 찾기 위해 밤낮으로 회의가 이어졌다. 준비한 회의실들로도 모자라 복도에서까지 열띤 논의를 벌였지만, 5일 폐회 예정이었던 총회는 결국 밤샘 회의를 거쳐 6일 오후 4시에 폐회되었다. 긴 릴레이 회의 끝에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가 승인되는 순간, 의장단, 집필진, 그리고 정부 대표단은 잠시나마 피로를 잊은 채 모두 기립하여 성공적인 보고서 승인과 제48차 IPCC 총회의 폐회를 축하하였다.

10월 8일 기자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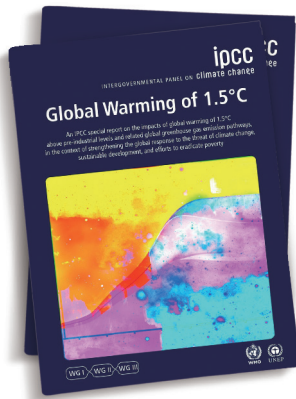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의 내용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국내외 외신들이 현장 기자회견과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뜨거운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IPCC 의장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인류를 위한 1.5도 목표를 향해 모두가 노력해야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제48차 IPCC 총회는 기자회견 당일 CNN 메인을 장식하는 등 전 세계로 보도되었다. 국내에서는 보고서 공개 이전 약 200여 건, 보고서 이후 일주일동안 주요 방송사 뉴스를 포함하여 약 100여 건 보도되었다. 이번 총회가 전 세계의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위상도 한 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



「지구온난화 1.5°C」 이해하기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21차 당사국 총회(COP21)에서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2100년까지의 평균 기온 상승폭을 2°C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되, 1.5°C까지 제한하자”는 파리협정이 채택되었다. 또한 IPCC에 1.5°C 온난화에 대한 특별보고서 작성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 당시까지는 1.5°C 지구온난화의 영향과 달성 경로에 대한 과학적 근거자료가 없었기 때문이다. IPCC는 이 요청을 2016년 공식 수락하였고, 80여 명의 집필진의 노력, 수천 명의 전문가 및 195개국 정부의 검토를 거쳐 제48차 IPCC 총회에서 최종 승인되었다. SPM*은 총 33페이지,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부터 500여 명의 정부대표단이 한 땀 한 땀 수정하고 승인한 SPM 내용을 살펴보자.

※SPM(Summary for Policy Maker): 정책결정자가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요약한 보고서



지구온난화는 얼마나 진행되었나? 그 전망은?

현재(2006~2015년 기준) 인간 활동에 의한 지구온난화는 산업화 이전(1850~1900년) 수준과 비교했을 때 약 0.87°C가 상승하였으며, 온난화로 인한 온도 상승 추세는 10년당 약 0.2°C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속도로 온난화가 지속되면 2030~2050년 사이에는 1.5°C를 초과할 것이다. 1.5°C 상승 시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평균 온도가 상승하고, 거주지 대부분에서는 폭염과 같은 극한 고온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온난화는 해양보다 육지에서 더 클 것으로 전망되며, 빈곤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동시에 2°C 온난화보다는 그 위험이 확연히 줄어든다. 2°C 상승 시 육상 및 해양 생태계 등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길 것으로 예상되지만, 1.5°C로 상승폭을 제한하면 그 위험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다.

지구온난화 1.5°C와 2.0°C 주요 영향 비교

구분	1.5°C	2°C	비고
중위도 폭염일 온도	3°C 상승	4°C 상승	
고위도 극한일 온도	4.5°C 상승	6°C 상승	
산호 소멸	70~90%	99%이상	
기후영향·빈곤 취약 인구	2°C온난화에서 2050년까지 최대 수억 명 증가		
물부족 인구	2°C에서 최대 50% 증가		
서식지 절반 이상이 감소 될 비율	곤충 6%, 식물 8%, 척추동물 4%	곤충 18%, 식물 16%, 척추동물 8%	2°C에서 두 배
해수면 상승	0.26~0.77m	0.30~0.93m	약 10cm 차이. 인구 천만 명이 해수면 상승 위험에서 벗어남
북극 해빙 완전 소멸 빈도	100년에 한 번 (복원 가능)	10년에 한 번 (복원 어려움)	1.5°C 초과 시 남극 해빙 및 그린란드 빙상 손실

지구온난화를 1.5°C로 제한하려면?

2100년까지 지구온난화를 1.5°C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10년 대비, 전 지구적으로 인위적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2030년에는 최소 45%를 감소해야 하며, 2050년에는 0(net zero, 인위적인 배출량이 인위적 흡수량과 균형을 이루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또한 에어로졸, 메탄 같은 이산화탄소를 제외한 온실가스 배출량도 함께 줄여야 한다.

에너지, 토지, 산업 시스템 등 여러 부문에서도 빠르고 광범위한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 지구온난화를 1.5°C로 제한하는 모델 경로를 살펴보면, 에너지 부문에서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가 전체 전력의 70~85%를 공급하나 화석 연료의 비중은 대폭 축소된다. 수송 부문에서는 저탄소 에너지원의 비중이 2020년 5% 미만에서 2050년 35~65%로 상승한다.

이러한 시스템 전환을 위해서는 2016~2035년 동안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연간 총투자금액이 2.4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저탄소 에너지 기술과 에너지 효율에 대한 연평균 투자도 2015년 대비 2050년까지 약 5배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사회 시스템이 전환되고 기후복원력 있는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도 1.5°C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모든 부문에서 공동의 노력은 기후변화에 대한 전 지구적인 대응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을 더 용이하게 할 것이다.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의 활용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는 1.5°C 온난화의 영향과 감축 경로에 대해 다루는 첫 공식적인 보고서이다. 이는 올해 12월 개최 예정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4) 기후변화 협상의 근거자료로 사용되어, post-2020 신기후 체제에서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치적 전환 국면으로 작용할 것이다. 📄

기상청 날씨 공감 프로젝트, SNS로 더 가깝게 소통해요

대변인실

대자연의 날씨는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우리들의 하루 또한 매일 이어진다. 그래서 날씨와 SNS에는 일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올해 기상청 SNS의 화두는 ‘국민의 일상처럼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기’였다.



실시간 소통하는 기상청

기상청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상정보를 SNS 콘텐츠를 활용해 더욱 쉽고 빠르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단순 기상정보 전달에서 한발 더 나아가 날씨로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시도해 국민과의 친밀감 증대 및 소통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정보를 지역별 랜드마크 이미지를 통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아울러 황사, 폭염, 집중호우 등의 위험기상이 발생하면 날씨 특보는 물론, 행동요령을 담은 콘텐츠를 SNS에 실시간으로 공유해 국민들이 빠르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제19호 태풍 ‘솔릭’ 특보 때는 태풍의 최신 경로를 3시간마다 제공하였으며,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으로 태풍 현황 및 전망 브리핑을 중계하여 대국민 위험기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재미있게, 쉽게, 트렌디하게!

기상정책을 설명하는 바이럴 영상 콘텐츠는 '재미'와 '정보 전달'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며 호의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호우특보 발표기준 개선 영상'과 '총자외선지수 홍보 영상'은 딱딱하고 어려운 정책 내용을 인형과 사물을 활용한 상황극으로 쉽게 풀어내 시청자의 이해를 높인 것은 물론, 기상서비스의 필요성까지 강조했다.

올해 기상청은 정보성 콘텐츠를 넘어 트렌디한 콘텐츠로까지 저변을 확대했다. 트렌디한 콘텐츠는 SNS에서 가볍게 소비할 수 있어 공감대 형성과 콘텐츠 확산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기상청 온라인 홍보팀은 데일리 웹툰 <날날날 하우스>를 신설하고,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한 칸짜리 그림 형태로 날씨 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이야기를 선보였다. '비 오는 날의 출근길', '계절이 바뀌는 순간' 편처럼 일상적인 이야기는 이용자들에게 큰 공감을 얻으며 긍정적인 호응을 얻었다. 또, 날씨와 유머를 섞은 내용으로 이미지를 제작하는 <Enjoy Weather>는 페이스북의 주 이용자인 1020 세대에게 꾸준히 좋은 반응을 받았다. 특히 올해 월드컵 시즌에 업로드 한 '전국기상모의고사 시리즈'의 '집중호우' 편은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세레모니를 패러디함으로써 누리꾼들의 높은 관심과 많은 댓글 반응을 기록하기도 했다.

국민의 친구가 되고 싶은 기상청

기상청 페이스북에는 자신이 경험한 날씨와 관련하여 다양한 반응의 댓글이 올라온다. 발전적인 방향의 댓글도 있지만 비판적이고 희화화된 댓글도 적지 않다. 이에 대변인실은 국민들의 기상정보 갈증을 해소하고 기상에 대한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콘텐츠 댓글에 실시간 답변을 달며 소통에 힘쓰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8 대한민국 SNS 공공부문 최우수상'과 '2018 SNS 페이스북 부문 최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현재 우리 청은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유튜브 등 4개 채널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페이스북은 9만 3천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국민과 가장 가까운 소통의 창구이다. 앞으로도 기상청은 SNS를 통해 올바른 기상정보를 발 빠르게 전달하고 국민들과 친근하게 소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흥 폭발! 감성 충전! 우리나라의 뮤직 페스티벌

최근 유행하는 말 중에 ‘워라벨’이라는 말이 있다. ‘Work-life balance’를 줄인 말로 일과 삶이 조화롭게 균형 잡힌 상태라는 뜻이다. 요즘엔 이렇게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 개인적인 시간이나 돈을 취미 활동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실정이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뮤직페스티벌 또한 점점 규모가 커지고 다양해졌다. 음악과 공연문화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뮤직페스티벌에 대해 소개해보고자 한다.



박형진
대전지방기상청 관측과



선물 중의 종합선물!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고 규모가 큰 뮤직페스티벌 중 하나로, 매년 10월 하순경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개최된다. 이 페스티벌의 특징은 올림픽공원의 다양한 체육관과 공간을 활용하여 각각의 특징이 뚜렷한 공연무대를 약 4개 정도 동시에 운영한다는 점이다. 동시에 여러 개의 공연무대를 운영하는 만큼 매년 국내의 다양하고 많은 실력파 뮤지션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으며, 그와 더불어 떠오르는 신예 뮤지션들을 발굴하여 많은 공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공연 순서에 따라 장소를 옮겨가며 평소 보고 싶었던 뮤지션들의 공연을 볼 수도 있고, 본인 취향에 맞는 공연무대에 일찍 자리를 잡고 앉아 하루 종일 좋아하는 공연을 즐길 수도 있다. 초기에는 인디음악 페스티벌의 느낌이 강했지만 이제는 축제 규모가 점점 커져 유명 가수들도 참여하는, 말 그대로 음악공연의 종합선물이라 할 수 있다.





힐링과 소울 충전을 동시에!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은 국내 공연문화의 성지 중 하나로, 매년 10월 중순경 자라섬에서 개최된다. 이 페스티벌의 특이한 점은 입장 구역이다. 보통 다른 뮤직페스티벌은 공연을 가장 가까이에서 ‘스탠딩 존’이 무대 앞쪽에 마련되어 있다. 반면,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은 스탠딩 존까지 피크닉 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크닉 용품이나 음식물 반입 등의 규제도 다른 페스티벌에 비해 자유로운 편이다. 선선한 가을하늘 아래 소울 충만한 재즈 음악을 피크닉과 즐기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이 페스티벌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내면의 흥이라는 것이 폭발한다! 월드 클럽 돔 페스티벌

최근 떠오르는 페스티벌계의 신형 강자가 있다. 바로 EDM(Electronic Dance Music)페스티벌이다. EDM이란 클럽이나 축제 등에서 춤을 추기 위해 만들어진 음악 장르로, 흔히 DJ가 틀어주는 전자음악을 말한다. 클럽 문화와 관련이 깊기 때문에 낯설거나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 페스티벌에 가면 그런 느낌이 전혀 없다. 수천, 수만 명이 음악에 맞춰 뛰고 즐기는 모습을 보다보면 어느새 그 속에서 함께 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페스티벌의 특징은 주 공연무대와 별도로 떨어진 공간에 아주 넓은 피크닉 존이 있어서 신나게 공연을 즐기다가도 한적한 잔디 위에서 피크닉을 할 수 있는, 정열과 휴식의 밸런스를 맞추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라는 것이다. 정신없이 뛰고 흔들며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한 번에 날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한번쯤 꼭 가볼 것을 추천한다.

이 외에도 힙합, 락 등 수많은 페스티벌들이 있으며, 매년 새로운 페스티벌들도 계속해서 생기는 추세이다. 이중에 자신의 취향에 맞는 페스티벌을 찾아 가족, 친구, 연인과 한번 가본다면 아주 좋은 추억이 될 것이다. 현재 미국을 포함해 K-POP문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만큼 이런 문화가 계속 발전하여 외국의 유명 페스티벌처럼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찾아오는 좋은 공연문화들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

서로가 서로에게 익숙해지는 시간, 여행



시작부터 쉽지 않았다. 아버지를 모시고 가는 첫 해외여행은 '가겠다'라는 확답을 받는 것부터 난관이었다. 올해 일흔이 된 아버지는 그럴 필요 없다며 한사코 손사래를 치셨고, 남편과 나는 지금이 아니면 못 간다는 심정으로 몇 번의 통화를 하고 나서야 겨우 알겠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연애기간부터 지금까지 모든 여행의 세부 일정을 짜는 것은 남편 몫이었다. 관광지를 정하고 이동 방법을 찾고 숙소를 결정하는 것까지. 남편은 우리가 함께한 그 어느 여행보다 열심이었고 결국 3일간 렌터카를 이용해 일본 와카야마 지역을 돌아보는, 예상 이동거리만 약 500km에 가까운 대장정을 계획해왔다. 국제운전면허증을 흔들어 보이며 준비 끝났다고 환하게 웃는 남편에게 '우리나라랑 운전방향이 달라서 운전이 힘들지 않을까' 또는 '한곳에서 쭉 머무는 것도 좋을 것 같아'라는 말은 불필요했다. 다만, 남편에게는 '고생했네'라는 격려가, 내 스스로에게는 '잘 다녀오자'라는 다짐이 필요했을 뿐이다.

여행의 첫 번째 난관은 나의 인사발령이었다. 교대근무를 하게 되면서 휴가 내기가 쉽지 않은 조건이 만들어졌다. 남편과 대책회의 끝에 기상대 상황이 어렵겠다 싶으면 남편이 아버지와 아들을 데리고 셋이서 여행을 가는 걸로 합의를 봤다. 하지만 많은 고민도 잠시, 선뜻 나서준 동료 직원 덕분에 나 또한 여행에 합류하여 오사카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다.



박윤희
항공기상청 김포공항기상대



일본 2차선 도로의 중앙선. 흰색 점선으로 그려지는데, 저 너머 포장된 길까지 보이니, 진입을 잘못했다 싶어 뒷골이 서늘해졌다. 끝까지 익숙해지지 않았던 도로.



같은 진행방향에 흰색 실선과 노란 실선 둘 다 있다. 흰색 실선이 중앙선, 그리고 노란 실선은 추월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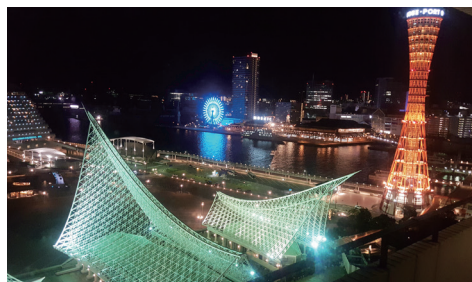
여행의 두 번째 난관은 바로 태풍 종다리. 이 녀석이 내가 여행을 가는 바로 그날, 바로 그 지역에 상륙할 거라는 예보를 보면서는 너무 황당해서 실소가 나왔다. 더군다나 첫째 날 숙소는 바닷가 섬에 있는 온천. 남편과의 두 번째 대책회의에서 나온 우리의 결론은 '태풍이 상륙하기 전에 공항에서 숙소까지 최대한 빨리 이동한다'라는 있으나 마나 한 것이었다.

여행의 세 번째 난관은 운전이었다. 일본 도로의 중앙선은 노란 실선, 흰색 실선 그리고 흰색 점선까지 다양했다. 안 그래도 좌우가 헛갈리는 마당에, 앞서 가는 차도 없이 가운데 흰색 점선만 딱 하니 그려진 도로를 만나면 우리가 역주행 중인가 싶어 온 가족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게다가, 방향지시등과 와이퍼도 우리나라와 반대로 위치해있어 남편은 방향지시등 대신 자꾸 와이퍼를 켜고, 도로 위 다른 운전자들에게 우리가 우측통행을 하는 국가에서 온 초보자임을 자꾸 상기시켰다. 이렇게 남편은 운전경력 15년 만에 다시 초보자로 돌아갔고, 그런 남편·사위·아빠를 위해 우리 가족은 다 같이 좌우를 살피며 좌회전 때는 “짧게 돌아~”를 우회전 때는 “크게 돌아~”를 외쳤다.

여행의 결론을 말해보자면, 우리의 여행은 비가 많이 왔고, 몹시 더웠으며, 오랜 시간을 차로 이동하느라 지친 시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여행은 파도 소리를 들으며 낮게 깔린 구름 속 온천을 즐기는 시간이었고, 짙은 햇볕 아래 푸르고 깊은 태평양 바다의 건너편을 상상하는 시간이었으며, 차창 밖의 풍경을 보며 가만가만 서로의 이야기를 하고 들으며 나아가는 시간이었다.

나는 여행의 시작에서 어디를 가는지보다 누구와 가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낯선 곳에서 익숙하지 않은 것들과 마주칠 때 그 설렘, 약간의 두려움, 기분 좋은 긴장감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공유할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각자의 일상에서 단절되어 오롯이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 있는 느낌, 서로를 살피고 점점 익숙해지며 느꼈던 편안함. 그것이 아버지와 내가, 장인과 사위가, 그리고 마냥 신나고 행복했던 아들·손주가 이번 여행에서 얻은 머릿속의 기억보다 오래도록 남아있을 마음속 기억일 것이다.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보다 힘들었던 기억이 더 깊게 패인다. 여행의 좋은 점이 있다면 힘든 기억마저도 추억할 거리로 남겨준다는 것. 그러니 힘든 여행일수록 한 번 더 떠나볼 일이다. 📷



우리가 묵었던 호텔 방에서 찍은 고베항의 낮과 밤
가운데 뾰족한 구조물을 가진 건물이 해양박물관. 왼쪽이 고베타워다. 저 멀리 관람차가 보이는 곳이 모자이크라는 유명 물(Mall). 고베항에서 보이는 태평양 바다는 푸르고 무거운 몸을 가만가만 뒤척였고, 깨끗하고 평온한 도시는 지친 여행자들의 마지막 날을 편안하고 인상 깊게 만들어주었다.



우리 동네 역사 산책

‘부산’ 하면 떠오르는 바다는 해운대, 광안리 송정해수욕장 정도일 것이다. 하지만 내가 사는 곳의 다대포해수욕장은 부산사람들도 먼 거리 탓에 안 와 본 사람이 많을 정도다.



몰운대 안내도(객사. 정운공 순의비)



임은국
부산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우리 동네의 재발견

얼마 전, 영화를 보기 위해 가까운 영화관을 찾았다. 본격 영화 상영에 앞서 한 영상이 나의 눈길을 끌었다. 때는 1592년 임진왜란, 부산의 어느 지역에서 아주 치열한 전투가 있었고 최후까지 성을 지키다가 장렬히 전사한 장수가 있다는 내용의 ‘다대진성’이라는 영상이었다. 나와 친구는 저게 신작 영화 광고냐, 아니면 우리 동네에 정말 저런 역사가 있는 것이냐 갑론을박을 벌였다. 집에 오는 길에 문득 다시 궁금해졌다. 인터넷으로 다대진성에 대해 검색해 보니, 동네에 실존하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항상 지나다니던 가까운 동네 길목 어딘가에 이런 의미를 가진 역사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 멀지 않은 곳이라 의미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새기고 동네 곳곳을 가보았다. 첫 시작은 다대진성의 옛터였다.

임진왜란의 흔적, 다대진성

다대진성은 조선 초기에 축성됐을 것으로 판단되는 성으로, 조선 시대 낙동강 하구의 국방의 요지였다고 한다. 이 성에서 임진왜란 때 다대포 전투가 있었는데 이 전투에서 첨사 윤희신 장군과 동생 윤희제가 결사 항전하다 전사했다. 동래읍성 전투, 부산진성 전투와 함께 3대 전투의 현장으로 알려져 있다. 1894년 폐성된 이후 현재는 동, 서, 남, 북 성벽의 일부만 남아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다대진성이 있었던 동네를 걸어보니 모르고 봤다면 알 수 없었을,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느껴지는 성벽이 있었다. 문화재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새로운 건물들이 계속 들어서서 그 흔적이 많이 사라져 가고 있었으나, 최근에 재조명되어 복원하려고 하다가 지금은 복원보다 보존의 방향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한다.

순국선열의 비석 앞에서

조금 더 걷다보니 ‘윤공단’이 나왔다. 눈에 띄는 붉은 홍살문을 지나며 여긴 누구의 사당일까 생각만 하곤 했는데, 윤공단은 송공단, 정공단과 함께 임진왜란 당시 순절한 선열을 모신 곳이었다. 다대포 전투에서 왜군과 싸우다 전사한 윤희신, 윤희제를 모셨기 때문에 ‘윤’공단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부산시 기념물 9호라고 한다.



홍살문과 비석



윤흥신, 윤흥제의 비석



다대포객사

처음으로 붉은 홍살문을 지나 계단을 올라가보았다.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비석들이 세워져 있었고, 한자로 그들의 역사가 짙막하게 적혀있었다. 형제는 함께 전사하였는데 서로 붙잡은 손이 풀리지 않아 하나의 관에 매장하였다는 설도 있다고 한다. 짧은 산책로가 이어지는 윤공단을 걷다보니 절로 숙연해졌다.

홍살문과 비석 윤흥신, 윤흥제의 비석

윤공단에서 내려와 다대포 객사로 향했다. 객사는 수령이 초하루와 보름에 대궐을 향하여 절을 드리는 데 사용하거나 사신들의 숙소로 이용되는 곳이다. 원래는 다대진성의 중심에 위치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객사를 현재 물운대로 옮겨 보존하고 있다. 물운대는 다대포 해수욕장과 연결된 낮은 산으로, 원래는 물운도라는 섬이었으나 낙동강의 퇴적물로 인해 육지와 연결됐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수없이 물운대를 오르며 보았던 다대포객사는 부산시 유형문화재 3호이자 이 지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조선시대 객사라고 하니 이전과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물운대와 이순신

물운대에는 정운공 순의비가 있지만, 군사지역이라 허가 없이 들어갈 수는 없다. 정운공은 이순신의 선봉장이었는데, 좌수영 앞 바다에서 출전할 뜻이 없는 이순신 장군에게 정운공이 칼을 뽑아 들며 눈을 부릅뜨고 나무랐다는 기록이 있다. 하지만 부산포 해전에서 적탄에 순절했고, 이때 이순신은 '나라가 오른팔을 잃었다'며 슬퍼했다고 한다. 오랜 시간이 지난 200년 뒤 다대포첨사로 부임한 정운의 8대손 정혁이 순의비를 세웠고, 세워진 비석은 바닷바람을 맞으며 홀로 서 있다가 1972년 부산시 기념물 20호로 지정되었고, 비각이 세워졌다고 한다.

물운대 산책을 하고 내려오니 내가 좋아하는 다대포의 일몰 시각이 찾아왔다. 걸어서 30분 이내면 모두 달을 수 있는 거리에 임진왜란 속의 치열한 역사와 의미가 숨어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관심을 가지고 알게 된 것에 대해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몰을 바라보며 조용히 바닷가를 걸을 수 있는 이곳을 참 좋아하는데, 역사를 알고 나니 우리 동네가 좋은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되었다.



방콕의 천사들



유난히 추웠던 지난해 겨울, 나는 조금 즉흥적으로 태국여행을 계획했다. 예보분석팀에서 반년 동안 함께 일하며 친해진 언니와 방콕여행을 떠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여행은 가족이 아닌 누군가와와의 여행이 처음인 나에게 또 하나의 도전이었다.

파타야의 보석, 코란섬

우리는 에메랄드빛 바다를 보기 위해 파타야에서 배를 타고 코란섬으로 갔다. 산호섬인 코란섬은 바다 생물인 산호초에 의해서 만들어진 섬이다. 산호는 아주 느리게 성장하기 때문에 축구공만 한 산호초로 성장하려면 20년이 걸린다고 했다. 산호초로 만들어진 섬이라니, 얼마나 오랜 시간 전부터 시작된 걸까. 코란섬의 에메랄드빛 바다가 너무 아름다워 냇을 놓고 구경했다. 섬에 조금 늦게 들어간 탓에 마지막 배를 놓칠 뻔했지만, 현지인의 도움으로 마지막 배를 탈 수 있었다. 배 안에서 바라본 석양 진 노을의 풍경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방콕의 천사들

태국에 오기 전, 인터넷으로 후기를 찾아보니 태국 여행은 반드시 1일 1마사지를 받아야 한다는 강력한 추천이 많았다. 우리는 마사지 가게로 향했다. 시원한 마사지를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결제를 하려는데, 헉! 조금 전까지 갖고 있던 지갑이 보이질 않았다! 잠깐 당황하긴 했지만, 평소에도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는 편이라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그렇다고 오늘 하루, 이번 여행을 망칠 순 없잖아?' 만약 돈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내 지갑을 발견해 유용하게 쓸 수 있다면 차라리 다행이다, 라고 내 자신을 위안하며 마사지를 받았다. 마사지는 기대 이상으로 좋았고 덕분에 우울했던 마음마저 싹 녹았다.



최예림
예보국 예보정책과

다음날, 방콕을 정신없이 여행하던 중 휴대폰이 울렸다. 그것도 태국 번호로. 전화가 온 곳은 다른 아닌 한국대사관이였다! 혹시 지갑 잃어버리시지 않으셨냐고,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만나자고 했다. 전화를 받은 그 자리에서 "감사합니다"를 한 열 번은 외친 것 같다. 약속 장소에서 대사관 직원분과 만나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지갑을 주운 사람이 가까운 음식점에 갔다 왔고, 그걸 방글라데시사람이 한국대사관에 갖다 준 거라고 하셨다. 눈물이 핑 돌 정도로 모든 게 감사해졌다. 이 지갑이 나에게 다시 오기까지 얼마나 착한 분들의 손을 거쳤을지 생각하니 따스함이 느껴졌다.





파타야 야시장에서



다시 찾은 지갑

감사한 마음에 사례라도 하고 싶었지만, 자신들은 해야 할 일을 한 것 뿐이라며 좋은 여행이 되라고 말씀해주셨다. 방콕의 천사들.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신기한 일이다. 덕분에 정말 마지막까지도 좋은 여행이 되었고, 이따금 생각나는 방콕은 나에게 무척 따뜻한 도시로 남아있다.

찬란했던 왓 포 사원

여행 마지막 날, 계획했던 일정을 마치고도 시간이 남아 별다른 기대 없이 왓 포 사원으로 향했다. 그러나 사원에 첫발을 디디자마자 거대하고 화려한 외관에 언니와 나는 한동안 서로 말을 잃었다. 그동안 내가 생각한 흙벽의 낡은 사원과과는 거리가 먼, 하얗게 금빛으로 빛나는 찬란하고 거대한 곳이었다. 종교는 다르지만 그곳에서 느껴지는 엄숙함과 기분 좋은 아름다움을 한동안 잊지 못할 것 같다. 만약 이곳에 오지 않았더라면 너무 후회했을 것 같다는 말을 나는 몇 번이나 되뇌었다. 그만큼 왓 포 사원은 우리에게 잊지 못할 장소가 되었다. 태국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에게 감동과 아름다움을 준 나라였다. 첫 태국 여행이라 실수투성이었던 모습도 따뜻한 감동으로 덮여준 태국의 고마움을 기억하며, 나도 더욱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이 든 여행이었다. 🇹🇭



코란섬



왓포사원

두 번째 채식을 시작하며

〈잡식 가족의 딜레마〉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다. 세 명의 구성원으로 이뤄진 이 가족은 모두 잡식을 한다. 하지만 영화가 진행되면서 식성의 분열이 일어난다. 한 명은 여전히 잡식을 하지만 두 명은 채식주의자로 바뀐 것이다.



김창환
수치모델링센터 미래수치기술팀

잡식주의자의 성찰

특별할 것 없는 식생활을 지닌 감독은 어느 날 대규모 살처분 사태를 보면서 가축을 키우는 축사를 돌아봐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농장주들은 축사를 공개하려 하지 않는다. 단순히 열악한 환경을 숨기고자 했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의도치 않게 외부에서 병이라도 옮으면 농장의 피해는 수습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빠질 수도 있으니까. 어쩌면 가축 전염병이 여러 차례 창궐한 뒤라 더욱 조심스러웠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감독은 수차례 노력하여 결국 실상을 파악하게 된다.

축사는 그곳에 사는 동물들에게 그야말로 지옥에 가까웠다.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지저분한 공간에서 살을 찌우기 위한 밥만 먹으며 평생을 지내다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삶. 그곳에 있는 동물들은 생명체가 아니었다. 일종의 단백질 배양 기계였다. 감독은 참혹한 실상을 보고 매우 놀란다. 의문도 가진다. '꼭 이렇게 키워야 할까. 고기를 얻기 위해 키우더라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제대로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감독은 수소문 끝에 문경의 어느 돼지 농장을 찾아가는다. 마찬가지로 고기를 얻기 위해 돼지를 키우는 곳이지만, 그곳에 사는 돼지들은 넉넉하고 깨끗한 공간에서 적절한 먹을거리를 먹으며 자라고 있었다. 우리 안에서 지내더라도 사람과 산책도 하고, 어린 돼지들은 느긋하게 어미의 젖을 먹었다. 결국엔 이 돼지들도 도축되겠지만, 적어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썩 괜찮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곳이었다.

교감하는 존재

감독은 아들과 함께 농장을 방문한다. 그곳에서 태어난 어린 새끼를 보고 만지고 함께 산책도 하며 가까워진다. 농장을 방문할 때마다 무럭무럭 자라는 어린 새끼 돼지의 모습도 지켜보게 된다. 첫 방문 때의 경계심은 만남이 이어지면서 허물어진다. 빨갭게 손질될 고깃덩어리는 그렇게 점점 친구로 바뀐다. 살아 움직이는 동물로서 팔딱거리는 심장을 갖고 아이의 곁에 서서 만지고 숨 쉬고 걷고 달리는 존재가 된 것이다. 감독과 아이는 슈퍼마켓의 정육 코너에서 하얀 스티로폼 그릇 위에 얹힌 상태로 포장된 붉고 녹녹한 고깃덩어리가 실제로는 사람과 교감하는 존재라는 점을 깨닫는다. 아이와 감독은 더 이상 고기를 먹지 못하게 된다.



딜레마, 딜레마!

남은 한 명의 가족은 여전히 고기를 먹는다. 그는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일하는 수의사이다. 그가 맡은 업무는 구조된 야생동물을 치료하는 일이다. 수많은 동물을 만나고 만지고 치료한다. 동물도 생명체라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다친 존재를 살려내기 위해 바쁘게 보낸다. 그러나 그에게 고기는 여전히 고기이다. 그에게 고기란,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고 맛도 있는 음식의 일종일 뿐이다. 아내로부터 공장식 축사의 실상을 전해 들었지만, 그것도 산업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그는 아내와 아이의 채식을 나무라진 않지만 동조하지도 않는다.

딜레마는 또 있다. 농장 주인은 촬영을 마치고 돌아가는 감독에게 농장에서 사육한 돼지로 만든 고기를 선물로 준다. 감독은 난처해 하면서도 선물을 받아온다. 영화는 이렇게 끝이 난다.

다시 시작한 채식

육식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 옳다고 잘라서 결론 내리기 어려운 문제이다. 영화에 동의할 수도,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육식을 멈출 수도, 계속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그만두었던 채식을 다시 시작했다.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바와는 다른 이유로 채식을 시작했다. 감독의 이야기는 고기를 먹으면서 일어났던 나의 불편한 마음이 찾아갈 곳으로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유럽 지역은 축산 영역에 동물복지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 사회도 인도적 축산이 그저 비용으로만 인식되는 곳이 되지는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옷 세탁하기 어려운 겨울, 소재별 세탁 방법



혹시 옷을 분류하지 않고 세탁기에 다 넣어버려 옷이 망가졌던 경험 있으신가요? 다들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겨울이 다가온 만큼 세탁할 옷의 종류도 다양해졌는데요. 소재별 세탁 온도와 올바른 세탁 방법, 지금부터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섬유별 세탁 온도와 방법



① 식물성 섬유

면은 중성 세제를 사용해야 자극이 덜 갑니다. 물빨래와 손빨래 어떤 방법도 무난하지만 고온 세탁은 피해야 합니다. 면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세탁을 하면 더 오래 입을 수 있습니다. 면을 손세탁할 때는 울 샴푸나 분말형 산소 표백제를 사용하고 30~40℃의 물에 10분 정도 담근 다음, 섬유에 자극이 덜 가도록 너무 세게 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를 세탁할 때는 30℃ 이하의 온도에서 세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흰색 옷의 경우 40~50℃의 물에 알칼리 세제와 산소 표백제를 1:2 비율로 섞어 30분간 담근 뒤 세탁해야 합니다. 색이 있는 옷은 찬물로 단시간에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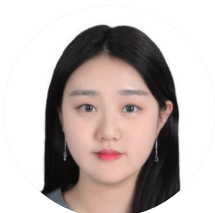
② 동물성 섬유

모는 형태나 섬유구조가 쉽게 변형될 수 있어 잦은 세탁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물빨래를 할 경우 세탁망을 사용하고 30도 정도 되는 물에 울 전용세제를 사용하여 가볍게 주물러주면서 세탁을 해야 합니다.

실크 소재일 경우 드라이클리닝이 가장 좋습니다. 실크의 경우 물에 약하기 때문에 세탁기로 세탁을 하는 방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세탁의 경우 중성세제를 사용하며 물의 온도는 35~37℃가 가장 적합합니다. 물기를 뺄 때는 섬유의 손상이 갈 수 있으므로 비틀어 짜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③ 합성 섬유

폴리에스테르의 경우 단독으로 세탁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30℃ 이하의 미지근한 물에 중성세제를 사용하여 세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에 오래 담그면 수축이 될 수 있으므로 단시간의 손세탁을 권장합니다.



김나경
기상청 10기 블로그 기자

나일론은 중성세제를 사용하여 20℃ 정도의 물에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백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단시간의 단독 세탁이 가장 좋습니다.

아크릴은 모와 성질이 거의 흡사하므로 물빨래를 할 경우 세탁망을 사용하고 30℃ 이하의 물에 울 전용세제를 사용하여 가볍게 주물러주면서 세탁을 해야 합니다. 정전기는 섬유 유연제를 넣어주면 잡을 수 있습니다!



4 재생섬유

재생섬유의 레이온 같은 경우는 물에 약하기 때문에 물에 닿으면 수축하고 탄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레이온의 경우 약 알칼리성 세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세탁을 할 경우 30℃ 정도의 미지근한 온도에서 손빨래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세탁기 사용이 불가피할 시 세탁망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하나, 변색된 흰색 양말.

양말을 삶을 때 물에 레몬 껍질을 몇 조각 넣고 삶아보세요. 얼룩덜룩 누랬던 양말이 다시 하얗게 돌아옵니다.

둘, 물이 빠지는 옷.

이염의 가능성이 있는 옷은 세탁하기 전 소금물에 30분 정도 담가뒀다가 세탁하도록 합니다. 소금이 옷의 색깔이 빠지는 것을 막아줄 테니까요.

셋, 옷에 묻은 뼛.

옷에 뼛이 붙었을 때에는 얼음을 껌에 문질러 조금 얼린 뒤 떼어내면 됩니다. 만약 얼음이 없다면 식용유를 칫솔에 묻혀 쓱쓱 문질러보세요. 비교적 쉽게 뼛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넷, 와이셔츠 목의 찌든 때.

와이셔츠 칼라 안쪽의 찌든 때는 샴푸를 발라 문지르면 쓱 빠진다고 합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셔츠가 다 마른 뒤 와이셔츠 목 부분에 분말형의 땀띠약을 뿌려놓으면 때가 땀띠약에 묻어 그 다음 세탁이 수월해진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흰 천에 얼룩이 묻었을 경우에는 달걀 껍데기를 이용해보세요. 달걀 껍데기를 거즈에 싸서 함께 삶아주면 얼룩이 하얗게 지워진다고 합니다.

어느덧 11월이 된 만큼 옷도 점점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소재별 세탁법을 정확히 숙지하여 오래오래 입도록 합시다. 🍷



긴 여름의 끝

저자 다이앤 듀마노스키 | 황성원 역 | 아카이브

이 책은 고속도로 이야기로 시작된다. “우리는 미래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다줄 넓은 고속도로처럼 항상 앞으로 곧게 뻗어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나도 줄곧 그렇게 생각해왔다. 지금 겪는 시련은 미래를 탄탄대로로 만들기 위한 인내의 공사장이며, 곧 속도를 내며 달려갈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최근 지구 전역에 물리적인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면서 미래는 다급한 고민거리가 되었다.

사라져가는 우리의 여름

이 책의 제목인 『긴 여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년의 여름이다. 과수원의 질푸른 잎 속에서 복숭아가 익어가는 것, 넓은 수박밭 길 가장자리에서 바람과 그늘에 늘 어지던 어르신이 지나가는 동네 아이들에게 경계의 눈초리를 보이는 것, 그러거나 말거나 아이들은 조금 떨어진 개울가에서 미역을 감으며 즐거워하는 것. 그런 장면들이 모두 담긴 여름 말이다.

하지만 그런 긴 여름, 우리가 기억하는 여름이 끝나가고 있다. 마치 한국전쟁을 겪었던 어른들이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점점 사라지듯이 우리가 아는 여름도 조금씩 저물어가고 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당시 이 말은 산업화 시대의 발전 결과만을 가리킨 이야기였지만, 이제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것은 물론 계절과 기후도 급격히 변하는 시간이 되어버렸다.

‘지구’라는 역동성

이 책은 ‘자연’이, 인간이 열심히 개척하고 생산하기만 하면 고속도로를 내어주는 대상이 아니라고 인지시킨다. 자연은 수동적으로 받고 내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생물권과 대기, 해양, 암석, 미생물, 균류 등과 상호관계를 맺고 적응하며 적극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이다. 지구라는 행성 안에서 물질대사와 다양한 생명체를 탄생시켰으며 지구 대기, 지질학적, 화학적인 과정처럼 무생물적인 존재와도 조화롭게 교류와 협력을 유지 해왔다고 말한다. 지구는 단순한 생태계의 집합이나 종들의 목록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 태양, 대기, 토양, 암석들의 상호 작용의 결과물인 역동체라고 선언한다.



윤기한
대변인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산업화 이후의 인구 증가, 사회경제의 급속한 발전은 그동안 유지한 지구 행성의 물질대사를 깨버린다. 20세기 들어 지구의 인구는 4배가 증가했지만 토지는 1/3만이 증가했고, 전 세계 식량 수확량은 6배나 늘어났다. 얼핏 효율적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식품 생산에 들어가는 에너지는 80배나 증가했다. 기술개발 성과보다 에너지의 증가가 더 크다는 것이다.


에너지 증가의 요인은 대부분 화석에너지이다. 과거 2억 년 전,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생존했던 식물들이 5천만 년 동안 축적해놓은 에너지를 가져다 쓰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를 건너 호랑이가 담배 피던 세대보다 훨씬 더 과거인, 인류 이전의 세상에서 저축해 놓은 5천만 년의 햇볕 에너지를 단 100년도 안 되는 시기에 탕진한 것이다.

기후변화 세대가 된다는 것

과거 암석, 대양, 생물권은 그 시대의 엄청난 탄소를 햇볕 에너지와 상호작용하면서 인류가 살 수 있는 대기 상태로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인류는 그 막대한 탄소 에너지를 문명 개발에 사용함으로써 탄소 문명을 만들었고, 막대한 양의 탄소를 대기에 다시 풀어놓았다. 자연 상태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는 1,000년에 30ppm 늘어왔다. 그러나 인간의 화석연료 시대 이후부터는 무려 17년 만에 그만큼의 이산화탄소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물질대사의 변화, 기후시스템의 변화는 그 긴 여름과 예년의 여름을 길거리에도 사람도 견지 못하는 침묵의 여름으로 변화시켰다. 적도가 아닌 한국에서 보기 힘든 이례적인 폭염이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출근길과 동네 시장 거리에서 겪은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기후의 변화 전후를 모두 체험한 세대가 되었다. 어쩌면 훗날 기후변화 현실의 이전 시대의 소비의 습관을 기후변화 현실화 시대에서도 버리지 못해 지구 자원을 다 소비한 세대로 비난을 받을지도 모른다.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

그동안 자연은 시간에 따라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이번 여름은 제철을 찾지 못하였다. 빠르게 변하는 기후변화 시대에서, 우리는 미래의 자연이 우리가 알던 그 자연의 모습과 달라질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한다.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인류는 지구에 생존하기 어려운 생명체로 바뀌어 있을지도 모른다. 이 책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 문책의 시점이 더 빨리 올 수 있음을 다양한 관점과 과학 근거를 바탕으로 철학과 곁들여 이야기한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지혜의 관점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고 보여주는 깊은 책이다. 



겨울철 건강 관리법

유난히 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 날씨를 짧게 즐기기가 싶더니, 갑자기 겨울이 오는 듯 아침, 저녁으로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겨울은 추위로 인해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면서 운동이 부족해지기 쉽고, 연말에 과중한 업무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 각종 모임에서의 과음 혹은 과식으로 인해 몸에 균형이 깨지기 쉬운 계절임을 이미 알고 있다. 춥다고 웅크리고만 있으면 알게 모르게 몸에 적신호가 올 수 있다. 늦가을 초겨울의 건강 관리를 위해 신경 써야 할 것은 무엇일까?



오범조
보라매병원 가정의학과 의사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질병

겨울철에는 기관지염, 독감, 신종플루 등 호흡기 질환이 흔히 발생한다. 또한 겨울철에는 갑작스러운 기온 저하에 따라 혈관이 수축하게 되어 뇌졸중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 또한 증가하게 된다. 직장인의 경우는 대부분 창문을 하루 종일 열지 않게 되는데, 난방을 하는 건물 내부에서 오래 일을 하면 머리가 무겁고 목과 눈이 따끔거리게 된다. 또 무기력해지거나 지나치게 건조한 공기 때문에 피부 노화가 가속될 수 있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겨울철 건강 관리법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가장 흔한 경로는 호흡기 감염에 걸린 사람의 손을 통해 감염되는 것이다. 주로 책상이나 손잡이 등을 거쳐 다른 사람의 손으로 옮겨지고 그 손에 의해 다시 코나 입의 점막을 통해 감염된다. 따라서 겨울철 호흡기 건강을 위해 외출 후 또는 틈틈이 손을 씻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아울러 겨울철 난방으로 인해 실내가 건조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 건조함은 호흡기의 일차 방어막인 코, 기관지 점막을 마르게 하고 바이러스나 오염 물질을 방어하는 힘을 약화시켜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운 상태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실내에 적절한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 가습기를 사용하고 매일 1.5리터 이상 충분히 수분을 섭취해 몸 안의 건조함을 예방하는 것이 좋다.



갑자기 추워지면 우리 몸은 추위로부터 몸의 균형을 지키는 데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다. 실내에만 머무르는 생활 습관 역시 몸의 면역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 일상생활에서 규칙적인 운동 또는 신체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어도 일정 시간마다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체조를 통해 몸을 활동적으로 유지하고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를 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와 같은 질환은 추운 날씨에 발병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나 목도리를 착용해 체온을 보호하는 것이 좋다. 또한 흡연을 하거나 당뇨, 고혈압, 부정맥과 같은 만성질환을 앓는 사람은 심혈관질환 및 뇌졸중의 위험이 더욱 커진다. 따라서 연말에 과로나 과음, 흡연을 자제하는 것이 당연하고, 만성질환자는 평소에 혈압, 혈당을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약을 빼먹지 않고 복용해야 한다.



그 밖에 고려해야 할 점

만약 추운 날씨에 뇌졸중이나 심장마비가 온다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응급조치를 받아야 한다. 뇌졸중의 경우 갑자기 말할 때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 심한 어지러움이 발생한다. 또는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시야가 흐려지거나 물체가 둘로 보일 때도 의심해볼 수 있다. 초기에는 구토감, 속쓰림, 어지럼증과 같은 애매한 증상으로 시작했으나 극심한 흉통으로 발전한다면 심근경색 초기증상을 의심해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플루엔자와 폐렴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접종을 챙기는 것도 겨울철을 앞두고 해야 할 일이다.



이처럼 추운 날씨로 몸의 부담이 증가하는 겨울철에는 몸의 균형과 규칙적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지구의 상들리에, 오로라를 보다

2017년 12월 10일. 결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설렘던 건 그동안 바라온 오로라를 드디어 보러 간다는 것이었다. 오로라를 보기 위해 전 세계인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아이슬란드와 캐나다 옐로나이프이다. 우리는 지형적으로 산악이 적어 넓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북위 62도의 캐나다 옐로나이프를 선택했다.



옐로나이프 공항에서



신선옥
제주지방기상청 관측과

꽃보다 오로라

우리는 2주간의 신혼여행 중 3박 4일을 오로라를 위한 일정으로 잡았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보통 3일 정도 머물면 오로라 볼 수 있는 확률이 90% 정도 되었다. 그 동네 주변에는 관광할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오래 머무는 것은 그다지 추천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우리는 3박 4일 머물기로 했다.

신혼여행은 자유 여행이었는데 오로라 관측만 현지 한인 업체를 통해 진행했다. 2일은 사장님의 판단(구름의 이동을 보고, 구름이 걷히는 곳)하에 오로라가 뜰만 한 곳으로 차를 타고 계속 이동하고, 1일은 그레이트 슬레이브호에 조성된 '오로라 빌리지'에서 '티피'라는 천막 안에서 휴식하다가 자유롭게 밖으로 나가 오로라를 관측하는 일정이었다. 모두 깜깜한 밤 10시~새벽 3시에 진행된다. 즉, 낮에는 되도록 폭 자두고, 밤에는 초롱초롱하게 깨어 있어야 했다.

뜻밖의 하얀 오로라

12월의 옐로나이프는 영하 16도에서 영하 30도 정도 된다. 하지만 오로라를 관측하려면 불빛이 없는 곳으로 이동해야 해서 관측 장소는 다운타운보다 훨씬 춥다고 했다. 사실이였다. 곰처럼 보일 정도로 방한복과 방한부츠 방한장갑을 겹겹이 끼입어도 야외에 30분 정도 있으면 손가락, 발가락이 얼어붙고, 눈썹이 할머니처럼 하얘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너무 추워서 힘들었지만 한편으로 신기한 모습에 재밌기도 했다.

운이 좋게도 첫날부터 오로라를 봤다. 그런데 웬걸, 사장님이 오로라라고 손짓한 곳을 쳐다보니, 마치 권운처럼 하얀 실루엣이 커튼처럼 흔들리더니 잠깐 사이에 사라졌다가 다른 쪽에서 생겼다. 내가 봤던 오로라는 초록빛이거나 오색 빛이 찬란했는데……? 정말 오로라가 맞나 싶었다. 사장님 말씀으로는 예전에 어떤 관광객은 오로라를 계속 못 보다가 마지막 떠나는 날 이 정도의 약한 오로라를 보고도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내가 생각했던 찬란한 오로라 빛은 아니었지만, 하얀빛의 출렁이는 오로라도 충분히 멋있었다.



오로라와 함께



북위 60도를 넘었다는 증서와 옐로나이프 기념 배지

오로라란?

태양에서 방출된 태양풍 속 전하를 띤 입자들 일부가 자기력선을 따라 자기장의 중심인 북극과 남극으로 모이게 되는데, 이 입자들이 지구의 대기층과 충돌하면서 가시광선과 자외선 및 적외선 영역의 빛을 내는 것. 사람의 눈에는 가시광선 영역의 오로라만 보이므로 강도가 약한 오로라는 육안으로 흰색으로 보이지만 카메라로 담으면 다양한 색으로 보이게 된다.

오로라가 뜨면 업체에서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준다. 그런데 노출을 해야 하는지라 10초 정도 눈도 깜빡이지 않고 포즈도 멈춰있어야 한다. 그야말로 '얼음'인 셈. 사진을 확인해보니 마치 합성을 한 것처럼 보일 만큼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다. 그동안 오로라를 사진으로만 봤던지라 더 그랬을 것이다. 셋째 날 밤, 하늘이 우리의 마지막을 달래주듯 초록빛의 출렁이는 오로라를 오로라 빌리지에서 목격할 수 있었다. 비록 내가 알던 오색의 찬란한 광경은 아니었지만, 남편과 나는 서로 신기해하며 '티피'에 있던 사람들에게 자랑했다.

다음엔 아이슬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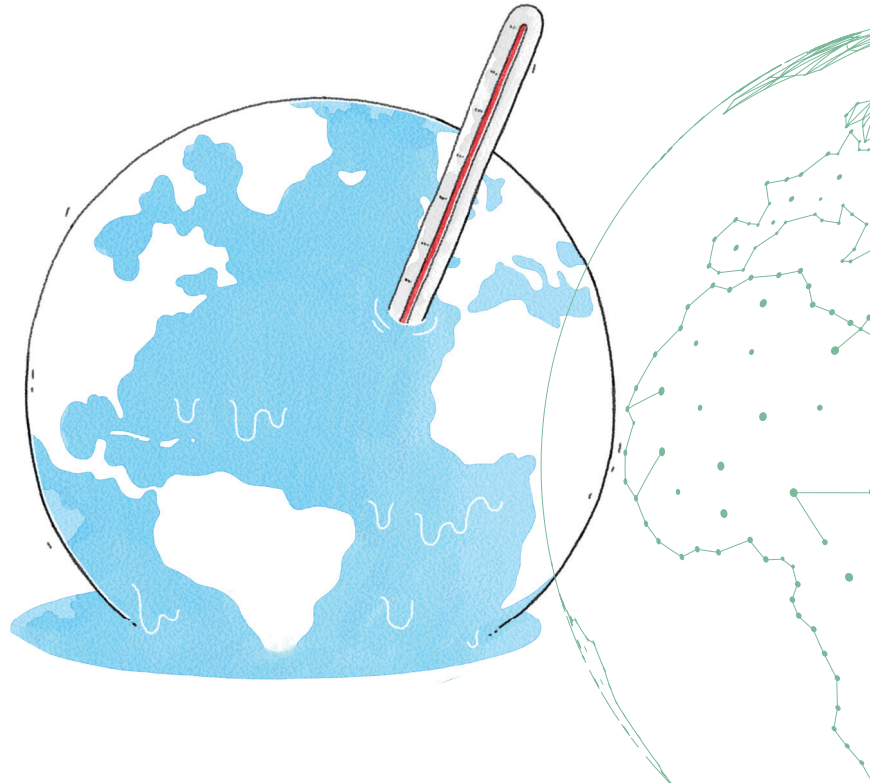
비록 내가 본 오로라는 그동안 사진에서 보던 것보다 약했지만, 추위 속에서 남편과 서로 따뜻하게 호호 불어주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혼자 여행 온 여자, 친한 친구 둘, 중학생 아들과 온 부부, 우리처럼 신혼부부)과 이런저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오로라를 기다리는 과정이 어우러져 행복한 추억으로 남았다. 가끔 이날의 사진을 볼 때마다 내가 정말 여기 다녀온 거야? 라는 생각이 들곤 한다. 그리고 오로라를 보러 다시 한 번 꼭 다녀오리라 버킷리스트에 담아본다. 다음엔 아이슬란드!

‘용갈이’가 나오는 국산 SF영화가 등장할까

일본 만화 <카페 알파>는 여러모로 독특한 작품이다. 인류 문명이 점점 붕괴해가는 미래를 묘사한 것 같은데 어쩐지 사람들은 다들 담담하게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삶의 풍경들은 평온하다 못해 목가적이고, 인간과 더불어 사는 로봇들조차 요즘 말로 ‘소확행’에 충실하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분명 디스토피아적 미래지만 분위기는 오히려 나른한 유토피아에 가깝다. 어쩌서 그런지 곰곰 뜯어보면, 아무래도 이 작품에서 배경으로 채택한 자연재해 때문인 것 같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육지 면적의 감소, 소행성 충돌이나 슈퍼화산 폭발처럼 단기간에 닥치는 파국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아주 서서히 진행되는 재난이라면 우리들의 태도도 것처럼 느긋한 절망으로 나타나는 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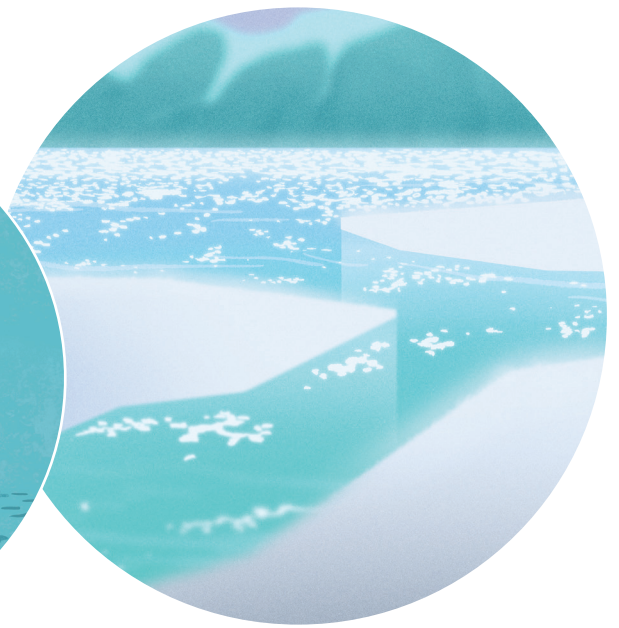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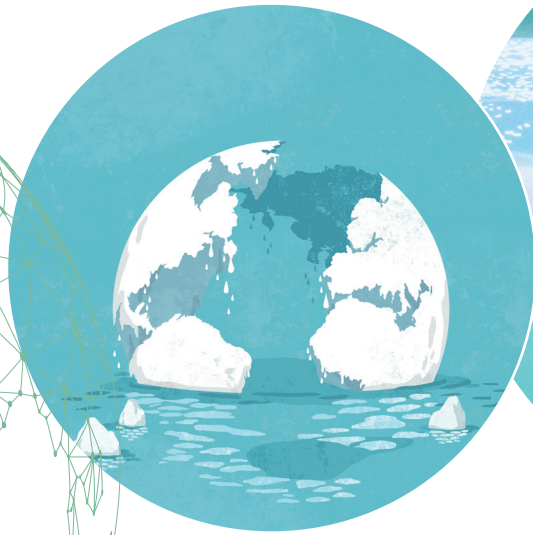


박상준
서울SF아카이브 대표



‘지구온난화’라는 말 대신에 ‘기후변화’라는 중립적인 표현을 쓰긴 하지만, 해수면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은 팩트이다. 온실가스 배출을 지금 당장 0으로 줄여도 상승 속도를 늦출 수 있을 뿐 해수면이 오르는 현상 자체를 막기에는 이미 늦었다고도 한다. 이런 추세의 최종 상태를 그린 SF영화 <워터월드>에는 변화에 적응한 신 인류가 등장한다. 귀 뒤에 아가미가 생기고 발가락 사이에는 피부막이 자라서 지느러미처럼 변해가는 것이다. 문명의 붕괴 정도가 아니라 아예 현생 인류의 이질적 진화를 그리고 있다. 과연 그런 지경까지 몰린다면 실제 인류의 대응이 어떨지도 흥미로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해수면 상승이 꼭 문명의 퇴보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영화 <A.I.>는 인간과 똑같은 안드로이드 로봇이 등장하는 22세기 말의 미래가 배경인데, 해수면 상승으로 뉴욕과 베니스, 암스테르담이 물에 잠겨버린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작년에 개봉한 화제작 <블레이드 러너 2049>에서는 로스앤젤레스 외곽을 둘러싼 방파제가 높아진 바닷물의 수위로부터 도시를 힘겹게 지키고 있다. 이밖에도 많은 SF 작품들이 미래를 배경으로 잡으면서 해수면 상승을 당연한 환경 조건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작가들이 현실적으로 이런 변화를 피할 수 없는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반면 <투모로우>에서는 뉴욕이 바닷물 대신 얼음에 퐁퐁 갇혀버린다. 기후변화가 국지적으로는 엄청난 한파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잘 묘사한 영화이다. 이 작품을 연출한 롤랜드 에머리히 감독은 <2012>에서는 태양 표면의 에너지폭발 현상인 플레어 때문에 지구상 육지 대부분이 순식간에 물에 잠긴다는 과감한 상상을 담았다. 태양 플레어는 알렉스 프로야스 감독의 영화 <노잉>에도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지구 대기를 우주로 흩어버리고 세상을 불바다로 만든다.

우리나라 영화 중에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극단적 상상을 펼친 작품이 있다. 세상이 온통 얼음으로 뒤덮인 미래가 배경으로 나오는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이다. 그렇게 된 원인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인공적으로 살포한 특수 물질의 부작용이라고 설정되어 있지만, 마지막에 가면 다시 따뜻해질 것이라는 암시가 나온다. 지구 대자연의 자정 작용은 인위적으로 초래된 이상을 바로잡고 결국은 자연적인 평형 상태로 되돌릴 것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우리 땅에서 심심찮게 접할 수 있는 흥미로운 기상 현상 하나를 영화에 등장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본적이 있다. 바로 '용갈이' 현상이다. 겨울 한파로 강이나 호수가 얼음으로 뒤덮인 경우, 날이 바뀌고 나면 이따금 얼음이 부서져서 일어난 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옛날 사람들은 마치 용이 얼음을 갈고 지나간 자국 같다고 해서 '용갈이'라고 불렀는데 나중에 표기가 변해서 '용가리'가 되었다. 한자로는 '용경(龍耕)'이라고 썼으며 얼음이 갈라진 방향을 보고 그해의 농사를 짓치는 일을 뜻하기도 했다. 용갈이 현상은 물이 액체 상태일 때보다 고체(얼음) 상태일 때 부피가 더 커지는 성질 때문에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다. 즉 기온 변화로 녹았던 얼음이 다시 얼면서 주변의 미처 덜 녹은 부분을 밀어내기 때문에 경계면을 따라서 얼음이 부서져 올라온다는 것이다. 이 현상을 진짜 용이 얼음으로 덮인 강 위를 지나가는 장면으로 연출해내는 한국 SF영화가 과연 나올까. ❧

사진으로 보는 기상청 소식



• 태풍 '콩레이' 언론브리핑 실시(10월 4일)
출입언론인을 대상으로 제25호 태풍 '콩레이'에 관한 브리핑을 기상청 국가기상센터에서 실시했다.

기상청은 신속하고 정확하며 가치 있는 기상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롭게 변모하는 기상청의 살아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전합니다.
| 편집단



• 기상청, 국토부, 해수부, 산림청 교육기관 업무협약식 (10월 5일)
기상청 소속 교육기관인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은 기후경제시대를 선도하는 핵심인재의 역량 향상을 위해 국토교통인재개발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산림교육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 제48차 IPCC 총회 폐회식(10월 6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총회가 치열한 논의 끝에 하루 연장되며 「지구온난화 1.5℃」특별보고서 요약본을 최종 승인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 기상청, 2018년 국정감사 수감(10월 15일, 29일)
2018년 기상청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10월 15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Photo News



올해 첫눈, 강원산지 설악산(10월 18일)

새벽부터 강원북부 산지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강원도 설악산 중청봉에 올해 전국 첫눈이 내렸다. 이는 작년보다 16일 빨랐다.



제4차 기상청 기상위성 사용자 학술대회 개최 (10월 22~23일)

올 12월에 발사되는 천리안위성 2A호의 활용 강화와 방안 모색을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함께 서울 더 케이호텔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2018 기상청-기상사업자 간담회 개최(10월 23일)

기상산업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업 측은 산업계의 입장 및 애로 사항을 건의하고, 기상청은 기업 측의 건의사항 추진 현황과 기상기술 서비스 가치 창출 방안을 공유했다.



제6차 한-미 기상협력회의 개최(10월 30~31일)

기상청은 국립기상과학원에서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의 부청장 루이스 우첼리니와 함께 양국의 기상기술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한-미 간 분야별 세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독자마당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머리 좀 식히면 어떨까요? 「하늘사랑」도 읽고, 상품도 타고, 스트레스도 풀고~♪

퀴즈 참여 방법

퀴즈 정답은 11월 25일까지 전자우편 (kmanews@korea.kr)으로 구독 소감과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름·주소·우편번호·전화번호를 꼭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기고 방법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매 정도(아래한글 10point, 줄 간격 160%, A4용지 1장 반 정도) 이고, 매월 20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글과 관련된 사진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채택된 외부기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이나 원고료를 드립니다.

한 단어? 한 문장!

제시한 단어에 대한 의미를 참신한 생각으로 뽑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12월호의 단어는 <음악>입니다.

지난달 우수한 한 문장! <그리움>

최은경, 강릉
어릴 적 노을빛 석양을 보며 집으로 돌아가던 길

이지영, 인천
마주 보면 알 수 없고, 등 돌리면 나타나는 마음의 창

김현숙, 수원
옛 추억, 행복했던 날들, 소중한 기억

홍소진, 서울
잊으려고 할수록 선명해지는 것

이현희, 인천
치료제가 없는 마음의 열병

QUIZ

지난달 퀴즈 정답

지난달 퀴즈 정답자

1. 태양에서 방출된 대전입자 일부가 지구 자기장에 끌려 공기분자와 반응해 빛을 내는 현상은?

- ① 무지개 ② 오로라 ③ 노을 ④ 번개

1. ③ 황제의 비
2. ② 아문딱 탈장

김미애(대전), 김현선(수원), 박옥남(서울), 심정연(남원), 최은순(인천)

2. 제48차 총회에서 승인한 특별보고서의 제목은?

- ① 지구온난화 1.0℃ ② 지구온난화 1.5℃
③ 지구온난화 2.0℃ ④ 지구온난화 2.5℃

인사

내용	일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임명	'18.10.12.~'20.10.11.	국립기상과학원	일반직고위공무원(원장)	주상원
명예 퇴직	'18.10.16.	기상청	행정사무관	김무현
휴직	'18.10.17.~'19.4.16.	기상청	기상사무관	한대석

시끌벅적 하늘사랑

조영인 경기

요즘처럼 서늘하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 기침을 달고 사는 체질인지라 이번 가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걱정스러웠는데, 10월호 하늘사랑에 실린 '가을에 마시면 좋은 차'기사가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사에 소개된 차들이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천연 식자재를 이용해 간편하게 직접 만들 수 있고, 차의 맛과 향기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약(藥)차인지라 더욱 관심이 갑니다. 여러 가지 가을 차의 종류별 다양한 건강 효능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내 건강과 체질에 딱 맞는 차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이현희 인천

20대 마지막 여름을 평생 기억하자는 생각에 친구와 단둘이 제주도 자전거 일주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주환상 자전거길' 라이딩 수기를 보니 그 의욕 넘치던 시절이 떠올라 가슴이 뛰었네요. 3박 4일 여름휴가를 마치고 온 후 한동안 '시커먼스'라는 놀림을 받을 만큼 몸골은 형편없었지만 마음만은 재벌 부럽지 않았던 청춘 시절의 저를 떠올릴 수 있어 좋았습니다.

최은순 인천

<플리마켓 첫 셀러 이야기> 이지미 씨의 기사 잘 읽었어요. 제가 사는 지역은 육아카페가 활성화가 되어 한 달에 몇 번씩 벼룩시장이 열립니다. 저도 종종 참여하곤 하는데, 저렴한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고 집에 필요 없는 물건을 파는 재미도 쏠쏠해 즐겁습니다. 특히 돈에 대한 개념이 없는 아이들의 경우, 물건을 팔면서 돈의 가치를 심어줄 수 있어 좋더라고요. 제주도의 '야몬딱 텃장'도 집에서 잠자는 물건을 깨우자는 슬로건처럼 다양한 물건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됐으면 합니다. '야몬딱 텃장'의 앞날에 더 많은 발전과 행보를 기대합니다.



글: 조희애 / 사진: 장건순, <추경>, 2017 기상기후사진전 계절상

숲

소년은 서쪽 숲으로 간다

검은 새가 파수하는
마녀의 심장을 얻으러 간다

태초부터 소년들은
사랑을 궁금해했다

바람이 불면
숲은
운명인지 비명인지 모를
소리를 질렀다

소년을 본 마녀는
웃을까, 비웃을까

소년들이
한 명씩 사라질 때마다

세계의 모서리에선
소년을 닮은 소년들이
허공을 찢으며 태어났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도
아름답게 여겼다

행복한 관광 즐거운 일자리



2018 관광산업 일자리박람회

11.20.(화)~21.(수) / 2일간 **atCenter 2**전시장

|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 공동주관 |  한국관광공사  한국호텔업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KATA 한국여행업협회  KATA 한국여행업협회  KATA 한국여행업협회

 KCA 한국카지노협회  (사)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한국MICE협회  KAPCO 한국관광동역안대사협회  KOTSA 한국관광동역안대사협회

| 후원 |  한국관광산업협회  교육부  고용노동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GKL사회공헌재단  IBK기업은행



Korea Climate and Meteorological
Industry Exhibition 2018

2018

기상기후산업 박람회



2018. 11.14.(수) - 16.(금)

KINTEX 제1전시장

주 최  기상청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주 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KINTEX 에너지경제
Korea Meteorological Institute

병행개최 제4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2018 한국국제승강기엑스포



박람회 사전참관 신청